

는 뚜렷한 부속체(elaiosome)가 있었다. 종자의 분산매개자(dispersal vector)로 주왕산 집단에서 '짱구개미(*Messor aciculatum*)'가 관찰되었다. 또한 노랑무늬붓꽃의 꽃의 해부학적 구조와 수분매개자간의 적합성(fitness)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A204 Systematic significance of seed morphology in tribe Hyoscyameae (Solanaceae): An interpretation of homology

Jin-Hyub Paik* and Suk-Pyo Hong
Laboratory of Plant Systematics, Department of Biology, Kyung Hee University, Seoul 130-701, Korea

The Seed micromorphological studies including anatomy of seven genera in the tribe Hyoscyameae (*Scopolia* Jacq., *Anisodus* Link et Otto, *Atropanthe* Pascher, *Przewalskia* Maxim., *Atropa* L., *Hyoscyamus* L., *Mandragora* L., except *Physochlaina* G. Don.) were carried out using the SEM (including an enzyme etching pre-treatment) and LM. Characteristics of the seeds and their surface cells between/among the investigated taxa are described and compared. In general, the seeds are reniform/subreniform, rectangular or circular in outline and 2.0-5.4mm long in size. The seed-coat ornamentation is basically reticulate/ruglo-reticulate, and the lumen is 250-445 X 130-400 μ m in size. Three patterns of the external seed testa can be recognized: 1. The cell walls of the spermoderm are straight (in *Scopolia* s. str. and *Atropanthe*), 2. sinuate (in *Anisodus* and *Przewalskia*), or 3. semi sinuate (in *Atropa*, *Mandragora* and *Hyoscyamus*). The seed testa is usually 120-180 μ m, but rarely up to 400 μ m (in *Atropanthe*) in thickness. On the basis of anatomical data of studied taxa can be distinguished into six groups.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arlier postulated phylogenies of these taxa in the tribe Hyoscyameae, and the possible transformation of seed characters is also briefly discussed.

A205 경기만 염습지의 식물상

심현보*, 서석민, 최병희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경기만 연안과 도서지역의 염습지 식물상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1999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4개 지역의 36개 염습지를 대상으로 자연염습지, 사구, 폐염전, 제방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서 염생식물은 16과 29속 40종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자연 염습지에만 서식하는 식물은 지채, 천일사초, 통통마디, 방석나물, 나문재, 해홍나물, 칠면초 등 7종이었으며, 갯방풍, 갯사상자, 갯쇠보리, 모래지치, 갯씀바귀 등 5종은 사구에서만 서식하였고, 28종은 염습지와 제방 모두에서 자라고 있었다. 또한 염습지의 특성에 따라 자연 염습지에 14종, 사구에 23종, 폐염전에 33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염습지 식물중 나문재속(*Suaeda*)의 칠면초(*S. japonica*)와 해홍나물(*S. martima*)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넓게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문재속의 국내 미기록종으로 판단되는 식물이 채집되었는데, 이 식물은 같은 속의 다른 종과 개화기, 줄기의 분지, 잎의 형태, 종자의 모양 및 생육지 등에 차이를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총 255종이며, 이 중 귀화식물은 39종이었는데, 염생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관속식물은 주로 제방에 자라는 해안성 식물이었다.

A206 Phylogenetic Relationship among several Genera of Dictyotaceae (Dictyotales) based on 18S rRNA and Partial rbcL Gene Sequences

Wook Jae Lee and Kyung Sook Bae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The partial sequences of the rbcL gene, RuBisCo spacer region and the 18S rRNA gene of representatives of the Dictyotaceae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to determine their phylogenetic relationship. The 1861 bases pairs of 18S rDNA sequences were aligned and examined. The aligned 422 bases of partial rbcL gene sequences give similar phylogenetic relationship among taxa as the 18S rDNA sequences. The genera of

tribe Dictyoteae formed two clades, and genera of tribe Zonarieae formed three clades. All genera of Dictyotaceae included in this sequences analyses a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which have a little resolution in phylogenetic relationship among them. Especially the genera classified into tribe Zonarieae in Womersley's criteria should not be monophyletic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status of apical meristem cell should not be criteria for tribe in the family Dictyotaceae and other hierarchy system should be adopted for reflection of phylogenetic relationship.

A207 한국 민속자원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http://jiri.chonbuk.ac.kr/minsok/index.html>)

김무열¹, 이병순², 안부영³, 박형선³
¹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²전주대학교 생명과학부;
³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 민속자원식물(Korean Ethno-economic Plants)은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동안 식물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이들 식물들을 약용, 향신료, 섬유, 염료, 식품, 가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한 식물들이다. 이들 식물들은 20세기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어 대부분 희귀 및 멸종식물이 되어버렸으며 이들 식물과 관련된 한국의 고유한 지적자산인 민속자원정보들도 빠르게 없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는 21세기에 신물질을 탐색하고 고부가 가치의 천연의약품, 천연색소, 천연향료, 천연기능성식품 등을 개발하는데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한국민속자원식물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4천여 자생식물중 자원으로 활용되는 800여종에 관한 형태학적 특징, 다양한 용도, 민속, 분포, 화학적 특징, 세포학적 특징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초·중·고 대학생들과 생물학, 한의학, 약학, 농학, 원예학, 조경학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우리꽃과 우리나라가 생물자원으로써 가지는 우수한 가치를 알게 하고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려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A208 한국 특산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http://jiri.chonbuk.ac.kr/teuksan/index.htm>)

김무열¹, 이병순², 안부영³, 박형선³
¹전북대학교 생물과학부; ²전주대학교 생명과학부;
³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 특산식물(Korean Endemic Plants)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에서 적응진화해온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분포하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식물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이다. 한국특산식물의 종수는 자생식물 4000여종중 10%인 400여종류에 해당되며 한반도의 식물상의 특성과 기원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식물이다. 그동안 한국 고유의 지적자산인 특산식물들이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경제발전정책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사라져 대부분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이 되어버렸다. 이들 특산식물들의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정보들은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신물질을 탐색하고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한국특산식물들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국가차원에서 요구되는 현실에 와 있다. 또한 1992년 리오에서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제정되어 국가마다 자국의 식물 자원을 보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들은 한국 특산식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한 한국특산식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우리의 고유식물인 특산식물의 학술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육효과 뿐만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에게 특산식물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한국의 특산식물들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들 유용자원식물들을 보존시키는 전략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209 A Phylogenetic Analysis of
Typha Using Nuclear rDNA ITS
Sequences and CpDNA Restriction
Site

Chang Kyun Kim^{*} and Hong-Keun Choi
Division of Natural Sciences, Ajou University,
Suwon 442-749

A phylogenetic analysis of *Typha* was performed using ITS sequences and